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사우디 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20년10월14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2,150 천 km <sup>2</sup> 	<b>인구</b> 34백만 명 (2019년 기준) 	<b>정치체제</b> 군주제 (정교일치 국왕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b>GDP</b> 7,930억 달러 (2019년 기준) 	<b>1인당GDP</b> 23,174 달러 (2019년 기준) 	<b>통화단위</b> Saudi Riyal (SR) 	<b>환율(U\$기준)</b> 3.75 (달러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요르단·이라크·쿠웨이트, 동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남쪽으로는 오만·예멘과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원유 생산량(2019년 중 11.8백만 배럴/일)을 바탕으로 세계 원유 수급과 가격을 주도하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으로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립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약세 및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원유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절 원유 수출로 축적한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안정을 지탱 해주고 있음.
-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물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5), 문화협정('75), 항공협정('84),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91), 투자장려·보호협정('03), 이중과세방지협약('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2), 국방협력협정('14),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8), 사증발급간소화양해각서('19)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5,147,056	3,951,951	3,697,120	석유류, 자동차, 철강
수입	19,590,480	26,335,761	21,840,581	원유, 유류제품, 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51건, 5,333,46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1.7	-0.7	2.4	0.3	-5.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0.8	2.5	-2.1	1.2
재정수지/GDP	-12.9	-9.2	-5.9	-4.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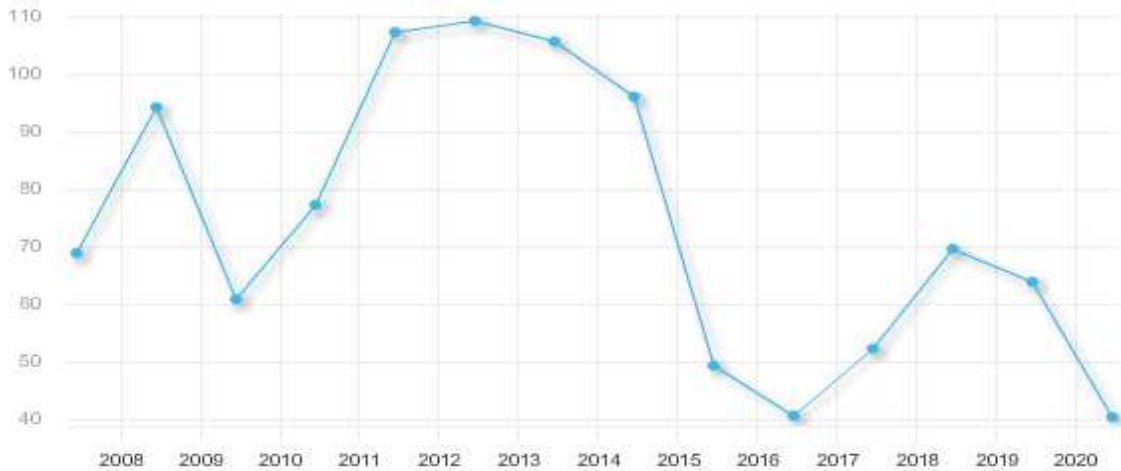
자료: EIU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원유 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5.2%)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가 GDP의 약 30% 및 총수출의 약 70% 비중(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2014년부터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6~19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0.9%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제유가 추이(OPEC Basket Price\* 기준)

단위: 달러/배럴



자료: O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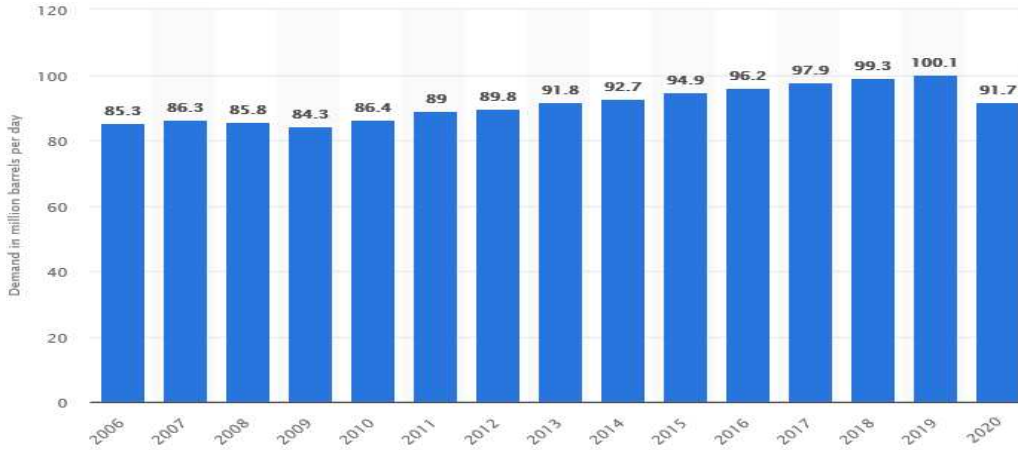
\* OPEC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13개 유종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원유가격으로, OPEC의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됨.

- 2020년 6월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세계 일평균 원유 수요는 92백만 배럴로 2019년(100백만 배럴) 대비 8백만 배럴 감소하여 역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외출 및 모임 자제 또는 금지는 물론 국가 간 육상·항공 교통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장 폐쇄로 생산활동이 둔화되면서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함.

## 국내경제

### 세계 원유 수요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STATISTA 및 IEA

- 세계 원유 수요 급감에 따라 국제유가가 더욱 악세로 전환된 가운데, 2020년 3월 OPEC+ 차원의 감산 합의 불발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발표로 국제유가는 4월 한때 OPEC Basket Price 기준 12.2달러/배럴까지 하락한 바 있음.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표 유종인 브렌트(Brent)유 선물가격은 19.3달러/배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37.6달러/배럴\*까지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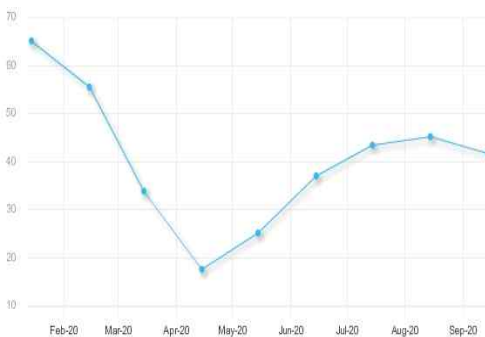
\* 원유 수요 감소로 원유 저장 시설이 원유로 가득 찬 상황에서 5월물 원유를 실제로 인수하기 보다는 이를 팔고 6월물 원유를 사는 '롤오버'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선물가격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 2020년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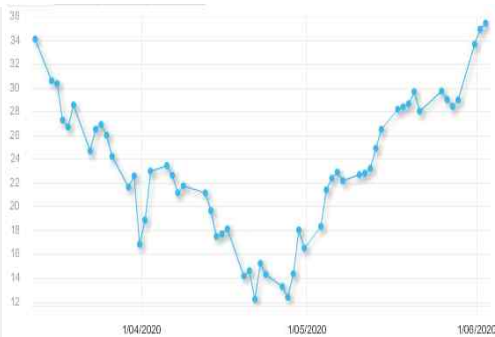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월별>

<일별>



Month	Price (USD/barrel)
Sep-20	41.70
Aug-20	45.19
Jul-20	43.42
Jun-20	37.05
May-20	25.17
Apr-20	17.66
Mar-20	33.92
Feb-20	55.53
Jan-20	6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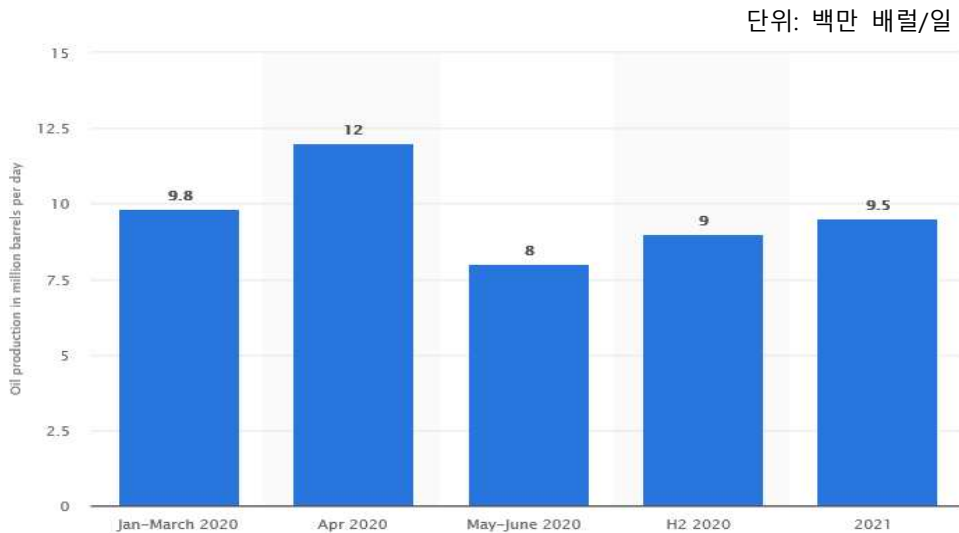
Date	Price (USD/barrel)
27/04/2020	13.30
24/04/2020	14.31
23/04/2020	15.23
22/04/2020	12.22
21/04/2020	14.63
20/04/2020	14.19
17/04/2020	18.17
16/04/2020	17.73
15/04/2020	17.51
14/04/2020	19.70
13/04/2020	21.18

- 세계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20년 4월 OPEC+는 사상 최대 규모 감산에 합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생산능력(약 12백만 배럴/일)을 크게 밀둘게 생산하며 감산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

\* OPEC+는 2020년 5~7월 9.7백만 배럴/일, 8~12월 7.7백만 배럴/일, 2021년 1월~2022년 4월 5.8백만 배럴/일 규모의 감산에 합의

## 국내경제

###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



자료: STATISTA, PWC 및 블룸버그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례적인 세계 원유 수요 감소 및 OPEC+ 차원의 감산 합의의 영향으로 석유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5.2%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임.

### 부가가치세율 인상 조치로 소비자물가 회복 전망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소매상 및 기업들의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0여 년 만에 디플레이션(-0.8%)에 진입하였음. 다만,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5%) 제도 도입으로 2.5%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기록하였음.
- 2019년에는 주택·수도·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다시 -2.1%의 디플레이션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조치(5% → 15%)로 인한 물가 상승효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Saudization)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이 주택(소비자물가지수의 25% 비중 차지) 수요 감소 및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민간 투자사로 알려진 자드와 인베스트먼트(Jadwa Investment)에 따르면, 2019년 중 44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으며, 2020년에는 1.2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이탈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

### 국제유가 약세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약세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외환보유액 사용 및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2014년 7,189억 달러에서 2019년 4,882억 달러로 감소하고 공적채무(public debt)는 2014년 694억 달러(GDP의 9.2%)에서 2019년 2,357억 달러(GDP의 29.7%)까지 증가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도 969억 리얄(258억 달러 상당) 규모의 국내 채권(domestic bond) 및 120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권(international bond)을 발행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사태로 인한 세계 원유 수요 급감 및 유가 급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수입 감소가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되며(전년 대비 -22.1%), 부가가치세율 인상(5% → 15%), 국영기업 민영화 등 세수 확대 및 공무원 앞 생활비 보조 중단, 정부 예산 지출 삭감(10%) 등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전망이다(GDP 대비 -10.5%).
  - 공공 부문 노동자 임금이 재정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48% 비중), 일단 늘어난 공공 부문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어 재정지출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지출을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현황

단위 : 억, %

구분	2018	2019 <sup>e</sup>	2020년 상반기
재정수입	SR 9,060 (U\$ 2,416)	SR 9,170 (U\$ 2,445)	SR 3,260 (U\$ 869)
재정지출	SR 10,790 (U\$ 2,877)	SR 10,480 (U\$ 2,795)	SR 4,690 (U\$ 1,251)
공공 부문 인건비	SR 4,840 (U\$ 1,291)	SR 5,040 (U\$ 1,344)	SR 2,490 (U\$ 664)
(비중)	(45%)	(48%)	(53%)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23,843	10,464	71,972	46,949	-38,232
경상수지/GDP	-3.7	1.5	9.2	5.9	-5.6
상 품 수 지	55,764	98,461	168,749	129,282	36,362
상 품 수 출	183,607	221,862	294,387	261,530	151,417
상 품 수 입	127,843	123,401	125,638	132,248	115,055
외 환 보 유 액	526,064	486,634	486,417	488,245	437,993
총 외 채	158,903	190,491	221,160	237,160	253,160
총외채잔액/GDP	24.6	27.7	28.1	29.9	37.2
D.S.R.	2.9	5.0	5.2	6.2	11.1

자료: IMF, EIU 및 OECD CRAM

### 풍부한 원유를 바탕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

- 세계 2위의 원유 확인매장량(2019년 말 기준 2,976억 배럴)을 비롯하여 알루미늄, 인산염(phosphate), 석유화학제품 등 상품 수출을 바탕으로 최근 3년 간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옴.
- 아울러 2019년 9월부터 기존 성지순례자 대상으로만 발급하던 비자를 비종교적 목적의 일반 관광객으로 확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기준을 완화한 결과 2019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535억 달러로 전년(-634억 달러) 대비 약 15.6% 개선됨.
-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교역 감소로 상품 수출이 42.1% 감소, 총수출이 38.0%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되고(전년 대비 -71.9%),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GDP 대비 -5.6%)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월평균 수입액 26개월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보유

-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은 2019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액 26.3개월분에 달하며, 이는 역내 타 국가들(아랍에미리트 3.8개월분, 쿠웨이트 7.0개월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달러 페그제(달러당 3.75리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달러 페그제 시행시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교역 및 자본 유출입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달러 페그제 시행 국가의 경기 부진 및 통화가치 하락시에도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외채상환능력

###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제채권(International Bond) 발행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하여 Global Medium-Term Note 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부터 외화표시 국제채권 발행을 시작, 2016년 175억 달러(1차), 2017년 125억 달러(2차), 2018년 110억 달러(3차), 2019년 75억 달러(4차) 및 30억 유로(5차)를 발행한 바 있음.
  - 2020년 들어 1월에 50억 달러(7년물 12.5억 달러, 12년물 10억 달러, 35년물 27.5억 달러) 및 4월에 70억 달러(5.5년물 25억 달러, 10.5년물 15억 달러, 40년물\* 30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권을 발행하였으며, 각각 발행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200억 달러 및 540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려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함.
- \*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발행한 국제채권 중 가장 만기로 알려짐.

### 총수출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증가

- 2019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총수출의 77.5% 및 GDP의 29.9%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총수출 및 GDP가 전년 대비 각각 38.0% 및 14.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총외채잔액은 총수출의 133.2% 및 GDP의 37.2%로 확대될 전망이다.



## 구조적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주도로 2016년부터 경제다변화 정책인 Vision 20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석유 의존도(2019년 기준 GDP의 약 30% 및 총수출의 약 70% 비중)가 지속되어 2016~19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약세로 인해 평균 0.9% 수준에 그쳤음.
- 아울러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여 마이너스 경제성장(-5.2%), 재정수지 적자 확대(2019년 GDP 대비 -4.5% → 2020년 -10.5%)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2019년 GDP 대비 5.9% → 2020년 -5.6%)이 전망되는 상황임.

### 2019년 9월 석유시설 피격 등 역내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

-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 맹주국으로 시아파 이슬람 대표인 이란과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서 양국이 각각 예멘 정부와 후티(Houthi) 반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대리전으로 비화하였음.
-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2019년 9월 국영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drone) 공격으로 국가 전체 산유량이 한때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역내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미국 셰일원유 개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로서의 입지 약화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위의 원유 확인매장량(2019년말 기준 2,976억 배럴)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세계 석유 수급과 가격을 좌우하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미국이 셰일원유 개발로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2019년 중 미국은 17.0백만 배럴/일, 사우디아라비아는 11.8백만 배럴/일 생산)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윙 프로듀서로서의 입지가 약화되었음.

## 성장잠재력

### 신재생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흐름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은 회의적

- 사실상의 군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바램과는 반대로 석유 산업에의 경제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화석연료(석유)에의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성장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임.

\* 총수출 중 원유 비중 : ('17) 62.5% → ('18) 67.7% → ('19) 71.6%

###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소폭 상승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가입 및 인터넷 사용 증가로 ICT 도입 평가항목의 순위가 상승하여(2018년 54위/140개국 → 2019년 38위/141개국) 종합순위도 2018년 39위/140개국에서 2019년 36위/141개국으로 소폭 상승함.

### 기업경영여건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세

-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보고서상의 평가항목 대부분이 개선되었으며, 그중 창업(Starting a Business) 항목은 한곳에서 등기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one stop shop) 순위가 2018년 141위/190개국에서 2019년 38위/191개국으로 급상승하여 순위 변동이 가장 컸음.
-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경영여건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7년 14.2억 달러에서 2018년 42.5억 달러, 2019년 45.6억 달러로 증가 추세임.

###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법 제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1.3조 달러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미개발 광물자원(구리, 금, 철, 납 등)의 개발을 위해 2019년 8월 산업·광물자원부 신설(기존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에서 분리) 및 2020년 6월 광물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음.
  - 산업·광물자원부는 2020년 6월 광물법 제정으로 인해 광물 펀드(Mining Fund)를 통한 금융 조달 및 지질 조사 등 광물 탐사가 용이해지고, 인허가 처리절차가 투명해지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

## 정책성과

###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 등 관광산업 육성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9년 9월 성지 순례자로 제한되었던 관광비자 발급 대상 범위를 일반 관광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홍해 연안의 20여 개 섬을 포함한 약 28,000km<sup>2</sup> 규모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를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는 레저 중심의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로 2017년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2018년 홍해개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근무자용 주거단지 및 홍해 관광단지 전용 공항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공항·주택단지·호텔·관광시설 등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홍해개발회사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관리 및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국영 제분소 매각 등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 확보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9년 12월 국영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지분 5%를 자국 증권거래소인 타다울(Tadawul)에 상장하여 294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2020년 7월 2개 국영 제분소를 민영화하였으며, 라스 알 헤어(Ras al-Khair) 지역의 담수화 및 발전소의 매각(약 35억 달러로 추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제다(Jeddah) 및 하미스무샤이트(Khamis Mushayt) 시(市)에 소지한 국영 제분소를 각각 20억 리얄(약 5.3억 달러) 및 7.5억 리얄(2억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율 3배 인상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세수 확대 및 재정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 5% 세율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및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7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5%로 3배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함.

###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점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효율성 점수는 최근 3년간 최저 점수 -2.5(나쁨)과 최고 점수 2.5(좋음) 사이인 0.3점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아랍에미리트(1.4점), 카타르(0.6점), 쿠웨이트(-0.1점), 이집트(-0.6점)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부 효율성 점수를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상위권으로 보임.

## 정치안정

### 살만(Salman) 국왕 고령에 따른 건강 이상설,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사실상 국정 총괄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로 국왕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음. 150명의 국정자문위원회(전원 국왕이 임명)가 정책 심의·자문, 법률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
- 살만(Salman) 국왕은 1935년생으로 2015년 1월 즉위 당시 이미 79세의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7월에도 담낭염 치료를 위해 입원한 바 있음.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살만 국왕 유고시 왕세자의 왕위 계승이 유력해 보임.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현재 30대 중반인 만큼 왕위 계승시 장기 집권이 전망됨.

### 2017년 6월 무함마드 빈 나예프(Muhammad bin Nayef) 왕세자 폐위, MbS 왕세자 책봉

- 2015년 4월 부왕세자(왕위계승 서열 2위)로 책봉된 MbS 왕자는 2017년 6월 21일 반포된 칙령에 의해 사촌형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Muhammad bin Nayef) 왕세자가 폐위되면서 신임 왕세자로 책봉되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MbS 왕자가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를 감금하고 물러날 것을 강요하였으며,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는 폐위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 동시에 가족과 함께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킴.
- 1953년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의 유언인 형제간 왕위 계승이 전통처럼 이어져왔으나, 현 살만 국왕은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자신의 아들인 MbS를 왕세자로 책봉하여 MbS 왕세자의 정통성에 논란이 존재함.

### 2017년 11월 왕자·장관·기업인들은 새 권력인 MbS 왕세자에 반강제적 충성 서약

- 2017년 11월 4일 칙령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의 창설과 더불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MbS 왕세자는 칙령 발표 당일 최소 11명의 왕자들은 물론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여 수도 리야드(Riyadh)의 리츠 칼튼(Ritz Carlton) 호텔에 연금하였음. 이들은 거액의 자산을 헌납하고 새 권력인 MbS 왕세자에게 충성 서약을 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 정치안정

### 정치적 위협이 되는 왕자들을 체포하여 Mbs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 제고

- 2020년 3월에는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전 왕세자), 아흐메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국왕의 동생)를 포함한 왕실 고위 인사들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무함마드 빈 나예프의 측근인 알자브리 박사(2017년 캐나다 망명)의 자녀들을 체포하여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사건으로 Mbs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제거되었으며, Mbs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함.

### Mbs 왕세자는 독재자 또는 개혁가의 양면적인 모습 혼재

- Mbs 왕세자는 여성 운전 및 여성의 축구장 경기 관람을 허용하고, 영화관 운영(과거 35년 간 금지)을 허용하는 등 매우 개방·개혁적인 면을 보이는 한편, 정부 비판적인 개혁 언론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폭락으로 정책 안정성 저하

- IHS Markit은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폭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입이 급감하여 관광·제조·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예산 삭감, 장기 개발계획인 Saudi Vision 2030의 추진력 약화 등 정책 안정성 (political stability)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0월 1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37.7백 만 명이 감염되고 108만 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5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33.9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는 5,043명 수준(사망률 : 약 1.5%)임.

## 사회안정

### 보수적인 사회문화로 언론 탄압 및 정치범에 대한 처벌 강한 편

- MbS 왕자가 왕세자 지위에 오른 2017년 6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 활동가·기자들에 대해 구금, 고문 또는 징역이 가해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180개국 중 170위로 최하위권이며, 이는 2013년 163위보다도 악화된 수준임.
- 특히 2018년 10월 개혁 성향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피살되는 사건의 배후로 MbS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지목되면서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172위까지 하락한 바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 '13년 163위 → '14년 164위 → '15년 164위 → '16년 165위 → '17년 168위 → '18년 169위 → '19년 172위 → '20년 170위

###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4위이며 개선 추세

-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스라엘에 이은 역대 4위이며 2017년(49점) 대비 개선된 53점을 받음. 아울러 평가대상 총 180개국 중에서는 51위를 기록함.
- 주요 중동 국가들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아랍에미리트(71점), 카타르(62점), 사우디아라비아(53점), 오만(52점), 이집트(35점), 이라크(20점)

## 국제관계

### 반이란, 친미 대외정책 오랜 기간 지속

- 2019년 9월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인프라 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는 등 이슬람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시아파의 본산인 이란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 및 훈련 등 지원을 받고 무기를 수입해오고 있음.
-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인프라 시설 공격을 계기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고, 주둔 미군 병력을 2,500명으로 증가시킨 바 있음.

### 예멘 내전 개입 및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

-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은 아랍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대 후티(Houthi)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간 대리전으로 비화되었음.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한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 시설 파괴 및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하여, 예멘 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상황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발생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 카타르 단교 사태 지속 전망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4개국)는 카타르의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과의 우호관계를 문제 삼아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교통편의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교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이란과의 관계 단절, 알자지라 방송 중단, 터키 주둔 기지 폐쇄 등을 거부하고 이란 및 터키와의 교역을 확대하였는 바, 양국간 단교 사태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변화 조짐

- 그동안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대의(Palestine cause)'를 따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산 제품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였음.
- 그러나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바레인이 관계 정상화 협정(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UAE 운항 항공편이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도 증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낮아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

- 2020년 말 D.S.R은 총수출 감소(2019년 대비 -38.0%)로 인해 전년 수치(6.2%) 대비 크게 상승한 11.1%를 기록할 전망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전년(11.2%) 대비 소폭 증가한 12.5%를 기록할 전망이며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 태도가 양호한 편임.
- 2020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리금 잔액 19,262.3백만 달러(단기 1,338.4백만 달러, 중장기 17,923.9백만 달러) 중 440.6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2.3% 수준으로 외채상환 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20.01)	2등급 (2019.01)
Moody's	A1 (2020.05)	A1 (2018.04)
Fitch	A (2020.04)	A (2019.09)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안정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신용등급 유지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원유 수요 감소 및 이에 대응한 OPEC+의 사상 최대 감산 합의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재정·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외환 보유액(월평균 수입액의 26.3개월분) 및 양호한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2019년 29.7%) 등을 근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약세 장기화로 2016~19년 평균 0.9% 성장에 머물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원유 수요가 더욱 급감하여 -5.2%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 세계 2위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절 원유 수출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여 2020년 재정수지 적자 확대,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에도 불구하고,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판단,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 2020년 3월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위협이 될 만한 왕자들이 체포되어 살만 국왕 유고시 MbS 왕세자로의 왕위계승이 더욱 유력해졌으며, 1985년생의 젊은 군주로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등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됨.